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3



▶ 94회 예고
아쇼까라마에서 3차 결집이 끝나자, 아쇼까왕은 장로 다섯 명씩을 한 조로 한 담마사절단을 각국에 파견한다. 마힌다 장로는 땅바빵니(스리랑카)로, 다른 장로들은 지중해 연안의 키레네, 이집트, 마케도니아, 그리스, 시리아로 출발한다.

1천 명 장로, 아쇼까라마서 결집하다

아쇼까라마가 정화되자마자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는 외도들의 교설을 논박하는 카타왓투(論事)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카타왓투를 정리한 까닭은 외도 추방을 일단락 짓고 아쇼까라마에 모인 1천 명의 장로들과 여러 논서를 암송해 결집하기 위해서였다. 오래 전에 붓다의 가르침을 모은 경장과 계율을 모은 율장은 장로들의 합송으로 결집한 바 있지만 논서들은 아직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결집이란 장로들이 모여 붓다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말한 뒤 합송하여 추인하는 의식을 뜻했다. 아쇼까왕이 목갈리뿟다띳사에게 말했다.

"결집은 얼마나 걸릴 것 같소?"

"대왕님이시여,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1천 명의 장로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틀렸다고 거부하면 동의할 때까지 합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힌다 장로도 참석해야 하는 것이오?"

"당연한 일입니다. 마힌다는 아쇼까라마를 책임지고 있는 수석장로입니다."

"장로께서 아쇼까라마에 복귀하셨으니 이제 마힌다는 수석장로가 아니지요."

그제야 목갈리뿟다띳사가 아쇼까왕의 생각을 간파하고는 물었다.

"마힌다 장로를 어디로 보낼 생각이십니까?"

"마힌다 장로를 산치로 보냈다가 땅바빵니(스리랑카) 왕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니 그곳에 파견하려고 하오."

"대왕님이시여, 결집이 끝나고 나서 보내소서."

"장로께서도 마힌다 장로와 함께 산치로 떠나주시오. 마힌다 장로는 산치에 들렀다가 바로 땅바빵니로 가야 하니 산치 탑 조성을 감독할 사람은 장로밖에 없는 것 같소."

"대왕님이시여, 늙은 제가 어찌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쇼까라마 결집을 마친 뒤에는 대왕님 명이라면 어디든 떠나겠습니다."

아쇼까왕은 마힌다가 결집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갈리뿟다띳사의 의견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산치 탑 조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까웠다. 산치 동산에 먼저 세상을 떠난 데비를 위해 탑을 조성하고, 산치 동산에도 외도의 출입을 금하고 승가를 분열케 하는 자를 추방하라는 담마칙령을 새긴 석주를 세울 참이었던 것이었다.

"장로시여, 마힌다 장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소."

"대왕님이시여, 저도 마힌다 장로가 어떤 의견을 내든지 따르겠습니다."

"나도 그러겠소."

아쇼까왕은 은근히 마힌다가 결집에 참여하지 않고 산치로 가기를 바랐다. 아쇼까왕이 산치에 탑을 조성하고 석주를 세우는 데는 데비를 향한 사랑과 추모 외에 두 가지 목적이 더 있었다. 첫 번째는 변방인 웃자인과 베디샤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 영토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남쪽의 잠부띠바 소국의 왕들에게 마우리아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아쇼까왕은 집무실에서 목갈리뿟다띳사가 물러간 뒤 경비대장에게 마힌다를 오후 늦게 불러오도록 지시했다. 점심 직후 옛 앙가국을 암행순찰하고 돌아온 삼빠딘의 보고를 받기로 돼 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은 왕손들 중에서 손자 삼빠딘을 가장 총애했다. 삼빠딘은 두 눈을 실명한 뒤 사라져버린 아버지 꾸날라를 닮아 눈이 크고 악기를 잘 다뤘다. 그런데다 승마와 검술에 능했다. 삼빠딘은 주로 암행순찰을 하면서 아쇼까왕을 도왔다. 그런데 삼빠딘은 탁실라 부왕이었던 아버지 꾸날라의 비극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점심을 마친 아쇼까왕이 집무실로 들어서 기다리고 있던 삼빠딘을 맞았다.

"오, 사랑하는 삼빠딘아."

"대왕님 명대로 옛 앙가국을 암행순찰하고 왔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다섯 그루 나무를 심으라고 지시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내 지시를 따르고 있더냐?"

"살라나무, 짬빠나무, 망고나무 등을 심어서 돌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지내는 사원에서 양을 죽이는 살생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짬빠성의 아지비까 구루들이 일찍이 내가 깔링가국을 정벌하고자 그곳을 지났을 때 내게 아주 호의를 보였느니라."

"대왕님께서 외도인 그들에게도 관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굴법당을 기증한 적이 있기는 하지. 네 할머니를 생각해서였지."

아쇼까왕은 자신이 지시한 칙령이 빠딸리뿌뜨라성으로부터 먼 거리의 지역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에 흡족해 했다. 아쇼까왕은 적당한 시기에 삼빠딘을 탁실라 부왕으로 보내려고 생각했다. 변방부터 통치경험을 쌓게 한 뒤 빠딸리뿌뜨라로 불러들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삼빠딘아, 피곤하겠구나. 별궁으로 돌아가서 쉬거라."

"어른들께 가서 인사드리고 쉬겠습니다."

삼빠딘의 아버지 꾸날라의 양모는 아상디밋따 정비였다. 첫째 왕후 빠드바마띠가 꾸날라를 낳고 죽자, 그때부터 아상디밋따가 갓난아기 꾸날라를 키웠고, 그런 까닭에 꾸날라가 성년이 되어 삼빠딘을 낳았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이 아상디밋따였던 것이다.

"띠쉬아락시따 왕비별궁에는 가지 않느냐?"

"예, 띠쉬아락시따 왕비님은 저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왕비가 너를 가리는구나."

아쇼까왕은 띠쉬아락시따의 까칠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묻지 않고 삼빠딘을 내보냈다.

핏덩이 같은 석양이 강가강 너머 지평선으로 기울고 있을 무렵이었다. 마힌다가 아쇼까왕의 집무실로 왔다. 경비대장은 뒤따라 들어오지 않고 왕궁 순찰을 돌았다. 아쇼까왕은 우두머리 궁녀를 앞세우고 들어왔다. 우두머리 궁녀는 바나나와 포도가 놓인 소반을 들고 있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장로여, 내일은 중요한 날이오."

"대왕님이시여,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은 아쇼까라마에서 결집을 시작한다고 들었소. 나는 하루라도 빨리 장로를 산치로 보내고 싶소. 그런데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는 결집을 마치고 장로가 가기를 바라고 있소."

"산치는 고향입니다. 늘 가고 싶었던 곳이 산치입니다. 더구나 산치에 탑을 세워달라는 어머니의 유언이 서린 곳입니다. 어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산치에 가겠다고 하니 기쁘오."

"그러나 대왕님이시여, 산치를 가되 수석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집을 마치고 떠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저는 산치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 땅바빵니로 가야 할 전법사가 아닙니까? 대왕님께서는 땅바빵니 사신들이 왔을 때 저를 통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비구니 장로인 상가밋따 편에 삼보디(보드가야)의 뻡팔라나무 가지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땅바빵니로 가는 것과 결집이 무슨 상관이오?"

"대왕님이시여, 이번 결집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장로들이 논한 것들을 합송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합송한 경장과 율장에 이은 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제야 아쇼까왕은 마힌다를 이해했다. 경과 율에다 논까지 삼장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만 붓다의 가르침이 땅바빵니 땅에 올바르게 전해질 터였다.

"장로가 왜 이번 결집에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알겠소."

"저와 상가밋따 장로니가 삼장을 가지고 땅바빵니로 간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쇼까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로들이 삼장을 정확하게 외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겠소. 그래야만 다른 나라에 두따(Duta, 담마사절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소."

"담마로 세상을 정복하시겠다는 대왕님의 뜻은 두따를 보내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두따를 이웃나라 말고도 피부색이 다른 아주 먼 나라까지 보낼 것이오."

실제로 아쇼까왕은 마우리아국에 인접해 있는 10개국 외에 먼 나라인 이집트나 마케도니아 등 6개국에 장로 다섯 명씩을 묶어 담마사절단을 파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장로 다섯 명을 한 조로 엮은 까닭은 그래야만 그 지역 출가자들에게 붓다가 정한 대로 계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섯 명의 담마사절단이 가다가 도중에 병들어 병사하거나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목갈리뿟다띳사는 담마사절단을 다섯 명 이상으로 하자고 아쇼까왕에게 건의한 바 있었다.

아쇼까왕이 담마사절단을 파견하려고 결심한 까닭은 안보적인 측면도 있었다. 최근에 경비대장과 호위대장 등 여러 명의 대장들이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담마로 방어하겠다고 고심 끝에 대답했던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이 멀리 멀리 퍼져갈 때 세상에는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호위대장이 들어와 두 사람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다. 호위대장은 아쇼까라마에 장로들이 모이고 있다는 동향을 보고했다.

"대왕님이시여, 아쇼까라마에 수백 명의 장로들이 와 있습니다."

"1천 명의 장로들이 얼마간 아쇼까라마에 상주할 것이니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외도들이 없으니 분쟁이나 불상사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대장들에게도 아쇼까라마에 1천 명의 장로들이 당분간 상주할 것이라고 전하시오."

"장로들은 얼마나 상주합니까?"

"나도 모르겠소. 수석장로께서 정할 것이오. 아마도 빠와라나 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오."

빠와라나(자자법회)란 안거 마지막 날에 수행자끼리 허물을 지적하고 참회하는 의식을 뜻했다. 결집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장로들끼리 기억하고 있는 논서들을 두고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다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빠와라나를 통해서 서로가 상한 감정을 해소해야 할 것이었다.

9개월 후.

마침내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와 마힌다 장로의 주도로 시작한 아쇼까라마 결집이 빠와라나 의식을 치른 뒤 끝났다. 아쇼까왕 통치 17년의 일이었다. 아쇼까왕은 1천 명의 장로들을 왕궁 후원으로 초대하여 가사와 바루, 음식을 공양했다. 목갈리뿟다띳사와 마힌다에게는 대왕코끼리를 하사했다. 두 장로가 산치까지 타고 갈 대왕코끼리였다. 추나르에 있는 호위부대 조장에게는 석공 수백 명과 장대한 석주 한 개를 산치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석공 수백 명을 보내라고 한 까닭은 산치 탑에 붓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붓다를 떠올리게 하는 뻡팔라나무나 불족(佛足), 천신과 악신, 붓다가 전생에 만난 동물들과 아쇼까왕은 물론 첫사랑 데비부인을 상징하는 그림까지도 조각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호위대장에게는 붓다의 사리를 호위하는 1만 명의 군사를 차출하라고 명했다. 아쇼까왕은 변방인 산치 지역의 백성들에게도 붓다의 사리를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아쇼까왕은 담마로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산치를 남방 잠부띠바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했다. 〈계속〉



